

지난해 광주서 보이스포싱 101억 피해

사기·주취폭력 등 생활범죄도 여전히 많아

광주경찰청, 5월26일까지 100일 특별단속 돌입

광주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화금융사기와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10건이 발생해 33억 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205건에 37억7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는 358건이 발생해 101억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기범죄도 2017년 6170건, 2018년 7072건,

2019년 775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취폭력 등의 사건도 최근 3년간 꾸준히 발생했다. 주취폭력의 경우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7년 2931건, 2018년 2610건, 2019년 2573건 등 매년 2500건이 넘는 발생 건수를 보였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하라” 총궐기대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사당체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열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궐기대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외치고 있다.

“살해했죠?” 고유정에게 돌직구 날린 판사…내일 판결은?

의붓아들 살해 유무죄가 무기징역·사형 가를 쟁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

“피고인 현남편과 두차례 유산 경유며 불화가 생겼고 그럼에도

현남편이 친자식만 예배하고 그래서 복수심 때문에 살해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중간에 깨더라도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의붓아들을) 침대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서 가슴 뒤편과 뒤통수 눌러서 살해한 거 아닌가요?”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37) 사건 12차 공판.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형기 부장판사는 범행에 선 고유정을 상대로 목격한 돌직구 질문을 쏟아냈다. 무려 2시간에 걸쳐서다. 마지막 공판에서 재판부가 고유정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에 앞서 피고인을 상대로 장시간 심문을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에서 재판부의 고심을 엿볼수 있는 장

면이었다. 이전에도 재판부가 고유정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날처럼 검찰이 신문하듯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묻고 따지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경우다. 특히 심문은 계획범행 여부를 다두는 전 남편 살인 혐의보다는 유무죄를 가리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비중을 뒀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의붓아들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린 것 아니냐”, “수면제를 현남편에게 먹인 사실을 들켜봐 염색을 해준 것 아니냐” 등 등 검사 못지않게 피고인을 압박하는 질문을 수차례 던졌다. 그때마다 고유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붓아들 관련해서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의 이례적인 행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재판부가 사형 선고를 앞두고 확실한 심증을 굳히려 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전히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미심쩍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고유정 선고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나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 정서와 달리 재판부에게 사형 선고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가장 최근의 사형선고는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고유정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사형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우리 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베를, 아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 단신 ●

3m 높이제한 구조물 들이받은 시내버스

18일 오전 9시58분쯤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천변길(선운지구~평동 방면)에서 시내버스가 3m 높이제한 철골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상부 배터리가 부서지는 등 일부 파손됐고 현장 정리로 일대에 30여분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이날 버스 수리를 위해 정비소로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은 “내비게이션을 착각해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A씨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동차도로 가로수 ‘뺑’ 운전자 차 버리고 도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10시56분쯤 목포시 대양동 목포IC(북향방면)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 안에 운전자는 없었고, 휴대전화와 소지품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커브길을 돌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보고 인근 CCTV와 차적 조회를 통해 행방을 쫓고 있다.

“밤상 치워 화나” 집 불 지른 30대...父子 병원행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7일 오후 8시54분쯤 광주 북구 풍향동 한 주택 2층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내부 5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원 상당에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1층에 있던 A씨의 아버지가 불을 끄려다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치워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 방화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동두천 공터 텐트서 30대 남성 3명 숨진 채 발견

18일 오전 11시4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의 중단된 공사현장에 펼쳐진 텐트 속에서 30대 남성 3명이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발견된 장소는 모 고등학교 이전 예정지역 공사현장으로 공사 중단돼 현재는 인적이 드문 곳이다. 텐트 위에는 방수천막이 덮여 있어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날 오전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시민이 텐트 주변에 빈 소주병과 약봉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다. 발견 당시 텐트에는 수면유도제, 연탄화덕과 연탄재 등이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35~36세인 이들은 광택 등 외지인들로 동두천 거주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상 등이 없는 등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